

바다무지개

2016년 1월호



사랑하는 CFC 고객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의 모든 어려움과 갈등은 사라지고
새로움의 빛이 환하게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새로움의 빛을 CFC 고객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지난 한해 "Happy 2015"을 통해서
암울했던 지난날의 서러움과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셨습니까?
CFC 고객여러분 스스로 만든 행복을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하시길 희망합니다.

2016년도는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CFC)가 한 단계 더 발전되어야 합니다.
기관의 발전은 개인 한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관 구성원 모두와 CFC 고객 모두가 합심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CFC 고객 여러분과 기관이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협력자일 뿐입니다.

저는 2016년도에는
"SMART 16"을 목표로 CFC 고객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용자 고객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칭찬받는 외국인력지원센터가 되길 희망합니다.

응복합업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며
친절함과 전문성으로 고객께서 능력을 인정하심으로 사랑받고
고객의 사랑과 아름다운 생각으로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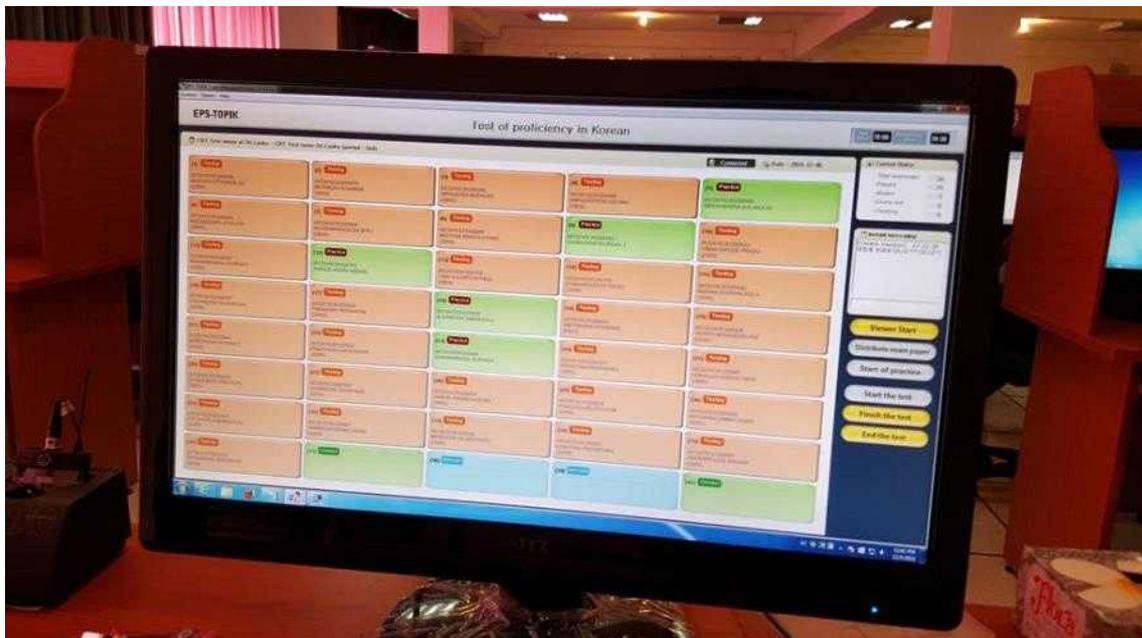
CFC 가족과 고객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건강, 행복, 사랑하심으로
풍성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6년 첫날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이명희 드림

2015. 12. 05(목)

[스리랑카EPS] 지금 2015년도 4분기 특별한국어능력시험 시험감독중입니다. 응시자 모두에게 좋은결과가 있기를 빕니다.





2015. 12. 05(목)

[스리랑카EPS] 어제는 National Film Corporation Theatre 에서 개최된 한국영화제 개막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스리랑카인들이 한국영화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2015. 12. 08(일)

[스리랑카EPS] 금년 4분기 CBT시험 진행중입니다. 열심히 공부한자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미얀마, 무역업 전면 금지에서 일부 허가로 변경

- 합작기업에 한해 4가지 품목에 대한 무역업 승인 -
- 높아지는 사업 안정성 및 불필요한 예산 절감 기대 -

□ 상무부, 미얀마와 해외 합작기업에 무역거래 허가

○ 2015. 11. 11.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Letter no. Saka 11/2_20/2015(7)을 통해 미얀마와 해외 합작기업에 순수 무역을 목적으로 한 무역거래를 허가하다고 발표함.

- 외국인에게 전면 금지되던 무역업이 현지기업과 합작한 기업에 한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됨.
- 합작기업의 무역업에 대한 수입 한도는 미얀마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투자금액 내로 제한함.

자료원 :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 본 발표에 따르면, 미얀마와 해외 합작기업은 비료(fertilizer), 종묘(insemination seeds), 농약(pesticides),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instruments used in hospital)를 수입하는 경우에 무역거래가 가능해짐.

- 합작기업이 무역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가된 품목은 시장 필요성, 경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예정임.

○ 무역 거래를 하고자 하는 합작기업은 미얀마 무역회사로 등록해야 하며, 현지기업과 같은 무역 규약을 적용받음. 무역 회사는 현지 환전소가 아닌 은행 이체를 통해 외화를 유통해야 함.

- 무역거래를 원하는 기업은 DICA(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 투자회사관리국)에 등록한 후 상무부로부터 무역 라이선스를 받아야함.

□ 외국 투자기업 무역업 현황

○ 인도계 무역법인이 불법 무역을 통해 외화를 밀반출했다는 이유로 2002년부터 미얀마 정부는 외국 무역법인(순수 무역만을 업으로 하는 법인-예 : 상사업)의 신규 및 연장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

- AS센터의 부품 조달 등의 이유로 서비스업에 한 해 수입을 부분적으로 허가해주었으나 그 외의 부분에서는 무역업을 금함.

○ 이로 인해 무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외국기업의 경우, 수출입 업무를 현지 업체에 아웃소싱하거나 현지인 차명으로 무역법인 설립 및 운영 본사와 바이어와의 직거래 계약을 통해 실제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현지 진출 무역법인의 경우 2002년 이후 현지인 명의로 회사를 새로 설립해 무역하고 있음.

○ 외국인이 직접 무역거래를 하지 못하다 보니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사업의 위험성이 높아짐. 의료기기의 경우 현지 바이어 명의로 FDA 승인을 받다보니 새로운 거래를 할 때마다 새로 승인 받아야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함.

- 차명으로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이 없으므로 외국 투자가의 체류 비자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재까지는 거래 관계가 있는 정부 관련 부처의 추천서를 받아 비자를 연장해 오고 있으나, 이민국에서는 더 이상의 비자 연장은 불허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음.

□ 시사점

○ 차명으로 운영되던 무역업이 본인의 명의로 다시 등록해 운영할 수 있어 사업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관련 부서 승인이나, 아웃소싱으로 인한 추가적인 예산 및 시간 절감이 기대됨.

- 체류 비자 획득도 수월해질 것이며, 차명 운영으로 인한 위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현재 4가지 품목으로 제한돼있지만 앞으로 미얀마의 산업화의 성장 및 각종 소비재와 해외에서 조달해야하는 품목이 증가할 경우 미얀마 정부에서도 무역가능 품목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됨.

○ 무역업을 허가한 4가지 품목 중 비료, 농약,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미얀마 내에서 수요가 증가해 바이어들의 관심이 많은 품목으로 우리 기업의 관심을 필요로 함.

○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기존에는 외국인이 무역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입하는 바이어 측에서 FDA 승인을 받았으나,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합작기업의 명의로도 FDA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KOTRA 양곤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2015. 12. 08(화)

[캄보디아EPS] 오늘EPS-TOPIK(CBT)을 끝으로 올해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그간 PBT 38,362명, CBT 1,138명, Skill Test 5,456명. 맞춤형훈련취업(331/173명), 구인구직 만남의장(4회.48명취업), 한국청년취업(11명), 미청구보험금찾기(310명), 세종학당(12과정.247명), EPS 온오프라인 홍보(376회) 등등 외국근로자입국 최다국가(4년 연속)를 기록하였습니다. EPS사업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5. 12. 11(금)

[캄보디아EPS]금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영범 이사장(EPS센터장 대리수여)께서 그간 많은 캄보디아 근로자 한국송출(15개 송출국가중 4년연속 1위)에 기여한 공로로 훈센총리의 정부공로훈장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메이드인 베트남 - Made in Vietnam'상품 해외시장 진출

- 한국에서 '베트남 대표 상품 전시회'를 관람하고 돌아온 후에 상공부 국내시장부서의 대표자는 한국 손님들이 베트남 상품을 점점 많이 구매한다고 밝힘.
- 구체적으로 베트남 기업들의 약 200개 종류의 상품들이 한국 롯데그룹의 114개의 마트에 진열되어 있으며 한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품들은 바나나, 망고, 용과와 같은 농산물 그리고 Trung Nguyen 커피, Yen Nhung 캐슈넛, Con Soc 커피, 333 맥주, 잭프루트, Bich Chi 쌀국수 면, Vifon, Kinh Do 등이 있음.
- 상공부 통계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등에서 개최한 베트남 상품 전시회 등을 통하여 베트남 상품들이 점점 해외시장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 예를 들어서 프랑스 시장 내에만 Big-C의 모회사인 Casino그룹을 통하여 매년 베트남의 약 60여개 업체로 부터 구매하고 1,100개의 컨테이너를 수입 및 공급하고 있음. 그리고 20개 국가에 있는 25개 파트너에게 공급했으며 그 중, 식품 57%, 의류 36%, 잡화 7%를 차지함.
- 싱가포르 시장에서는 SaigonCo.op이 싱가포르의 대형마트인 NTUC FairPrice와 합작하여 50개 종류의 상품을 소개했으며. 그 중, 냉동 생선 필레, 사포딜라, 호주 망고, 코코넛 등이 있음.
- 그리고, SaigonCo.op은 2015년 동안 70개 컨테이너(1,200개 종류)를 NTUC FairPrice에 수출함.
- 특히, SaigonCo.op과 Satra가 2015년에 러시아의 가장 큰 소매유통인 Magnhit 마트와 베트남산 제품 유통에 관한 MOU를 체결함.

Magnhit 그룹은 러시아 전국에 1,600개의 마트를 보유하고 있음. 그리고 러시아의 Incentra회사는 2015년 11월 또는 12월 중, 하노이-모스크바 종합센터서 규모 600개 부스의 전시회 개최협력을 기업들과 체결함.

[베트남 상공 신문 December 9, 2015]

2015-12-28

계절근로자 하루 12시간 초과금지 및 월 4회 휴일

- 노동보훈사회부는 주문별 생산 근로, 계절 근로에 대한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관련 시행령 제54/2015/TT-BLDTBXH 발행함. 동 시행령은 2016년 2월 10일부터 발효됨.
- 적용대상은 근로계약서 제도에 따라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 근로기간이 명확한 근로자, 근로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근로자(장시간 방치하지 못하고 바로 수확 및 가공을 해야 하는 농산물, 임산물, 해산물 등 계절적 작업 및 섬유, 의류, 가죽, 신발, 전자부품 조립 등 주문에 따라 제조하고 주계약자가 요구하는 시간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업종)
- 상기 업무에 대한 근로자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기업 및 생산 공장임. 기업법에 의하여 활동하고 있는 기업, 근로계약제도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
- 시행령 규정 내용으로, 하루에 전체 근로시간(표준근무, 초과근무)은 12시간 초과를 금지함. 이와는 별개로 힘들고, 유해하고, 위험한 업종의 경우 9시간 초과 금지
- 일주일 동안의 전체 근로시간(표준근무, 초과근무)은 64시간 초과를 금지하며 힘들고, 유해하고, 위험한 업종의 경우 48시간을 초과 금지
- 한 달 동안의 초과근무는 32시간 초과를 금지하며 힘들고, 유해하고, 위험한 업종의 경우 24시간 초과 금지

- 고용자는 주 또는 월 기준으로 근로시간과 초과 근무시간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 및 한 해 동안의 휴식시간과 근무계획을 작성함.
- 월에 따른 초과 근로시간을 적용할게 될 경우, 일주일 동안의 표준 근로시간은 56시간 초과를 금지하며 힘들고, 유해하고, 위험한 업종의 경우 42시간 초과 금지
- 모든 근로자들의 대한 연간 총 초과 근로시간은 300시간 초과를 금지
- 매주 근로자들은 1일 쉴 수 있음. 그러나 계절적인 달이나 주문에 따라 수출가공작업이 시급하여 주휴가 실행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최소한 월 4일의 휴가를 부여
-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시간의 휴식, 교대근무시의 휴식은 노동법 규정에 따라 수행함. 그리고 하루 1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자는 근무시간으로 계산되는 최소 30분 이상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 기업들은 근로자가 휴일을 취하거나 공휴일, 설, 연차휴가와 노동법 규정에 따른 기타 유급 휴일들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출처: 베트남 투자 온라인 20 Dec, 2015]



보도자료

[2015. 12. 10. 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문의: 박현영 비서관
02-784-6831

이자스민 의원, 현행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10일 현행 고용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5년 6월말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비전문 외국 인력은 약 57만 명으로, 중소 제조업을 비롯하여 농·어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법적 지위는 아직까지 열악한 형편으로 UN 등 국제사회로부터 고용허가제도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업장 변경 제한에 따른 강제노동의 우려, 농·어업분야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미 적용, 열악한 주거 현실,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의 구인·구직 정보 불균형 등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여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제약을 일정부분 해소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기준에 적합한 숙소를 제공하도록 사용자에게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구인 사업장에 대한 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자스민 의원은 “이번 개정 법안에 담긴 내용은 이주노동자는 물론 각 국 대사관 노무담당관, 시민단체 활동가 등과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개정 법률안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이주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고용허가제의 그늘> 이라는 단행본을 발간한 바 있다.

끝(법률안 첨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5. 12. 10.

발 의 자 : 이자스민의원

찬 성 자 : 이자스민·이한성·신경림

최봉홍·민현주·홍문표

윤명희·진 영·장하나

이재오 (10인)

제안이유

2014년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숫자는 약 25만명 수준으로 제조분야 등 국내 경제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법적 지위는 아직까지 열악한 형편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고용허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농업분야에서의 소규모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미적용 문제, 비닐하우스 등을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열악한 주거현실, 그리고 사업장 이동에 있어서의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의 구인·구직 정보 불균형 문제 등은 내국인에 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열악할 수 밖에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생존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서 그 개선이 시급함.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금지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숙소를 제공하도록 사용자에게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에 대한 제약을 일정부분 해소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안 제3조의2 신설).
- 나.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9조제3항).
- 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신고받은 고용변동에 관한 내용이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유지 여부와 관련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 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사용자에게 적격자를 추천하는 방법 이외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용자에게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알선할 수 있음(안 제25조제2항 후단 신설).
- 마. 근무처 변경신청을 대리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근무처 변경신청이 지연되어 근무처 변경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25조제4항 신설).
- 바. 사용자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1인당 주거면적, 편의시설 및 그 밖에 구조·설비 등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숙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제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사용자는 그 당시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 한정하여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유지 여부와 관련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의4제1항 중 제1호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삭제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갱신을”을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갱신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
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준용되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적격
자를 추천하는 방법 이외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용자에게 관한 정보를 제공하
는 방법으로 알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처 변경신청을 대리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근무처
변경신청이 지연되어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숙소의 제공 등) ① 사용자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1인당 주거면적, 편의시설 및 그 밖에 구조·설비 등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숙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상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그 숙식제공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계약기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무처 변경신청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숙식비용 청구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유지 여부와 관련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② (생 략)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① 제18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① -----

-----.

1.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제25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 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삭제>)

2. (현행과 같음)

3. <삭제>

②·③·④ (현행과 같음)

2. (생략)

3.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

②·③·④ (생략)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

 -----.

1. -----

 -----사용자 또는 외
국인근로자가 갱신을-----

2. 3. (현행과 같음)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3. (생략)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② -----

-----. 이 경우 직업안정
기관의 장은 준용되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적격자를 추천하는
방법 이외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용
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알선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처 변경
신청을 대리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근무처 변경신청이 지연되어 제3항
에 따른 기간을 초과한 경우로서 직
업안정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인정
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제
3항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5조의2(숙소의 제공 등) ① 사용자
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외국인근로
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1인당
주거면적, 편의시설 및 그 밖에 구
조·설비 등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
한 숙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상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식
을 제공하는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그 숙식제공 비용을 청구할 수 없
다.

③ (생략)

<신설>

④ (생략)

<신설>



보도자료

[2015. 12. 30. 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문의: 박현영 비서관
02-784-6831

이자스민 의원, 외국인근로자 숙소 환경개선 봉사활동 참여

-경기 화성 소재 기업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 청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영범 이사장 등 공단 관계자와 함께 30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효동기계공업(주)을 방문해 외국인근로자 숙소 환경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2015년 연말을 맞이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따뜻한 체류환경을 조성하고 사업 현장의 의견청취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봉사활동에 앞서 효동기계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26명(인도네시아 17명, 필리핀 3명, 베트남 3명, 네팔 3명)을 비롯한 기업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실제 작업장을 둘러보면서 기계설비 등을 점검한 후,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로 자리를 옮겨 바닥 장판 교체 작업과 노후 전기시설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오늘 방문한 사업장처럼 정밀한 작업 능력이 요구되는 제조업의 경우 숙련된 기술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숙련된 장기근속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제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보다 완화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8월 기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한국에 체류해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21만 1천112명에 이르며, 15개 국가(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중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동티모르)에서 매년 5만여 명의 인력을 한국으로 보내고 있다.

산업현장 한국어교실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
서는 STX 중공업과 함께
하는 "산업현장 한국어교
실" 이 있었습니다.

겨울에 한걸음 다가선 추
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을 지닌 외국인근로
자분들과 함께 하는 따뜻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시: 2015.12.04. 17:30~
19:00

장소: STX중공업 1공장
교육장

내용:기초 한국어 교육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에서는 2015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가 있었
습니다.



남창원 농협에서 김장
김치 45박스를 외국인
력분들의 따뜻한 겨울
을 위해 후원해주셔서
일요일 센터를 찾은
외국인력분들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사랑
의 김장나눔으로 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일 시 : 2015. 12.06(일)
15:00~

장 소 : 다목적 홀

대 상 : EPS 외국인근로
자

수 량 : 김장김치 45박
스

후원기관 : 남창원 농협

마산의료원 무료진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마산의료원 무료진료가 있었습니다.

겨울 초입이라 그런지 유독 감기 처방 환자가 많았네요.

24명의 근로자들이 무료 진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마산의료원의 1월 무료진료는 1월 17일입니다.

기억해두셨다가 꼭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42회 TOPIK 합격증 수여식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제42회 TOPIK 시험에 합격한 외국인력분들과 함께 TOPIK 시험 합격증 수여식을 실시했습니다.

바쁜 회사생활에도 틈틈히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회사생활은 물론 한국어 교육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어주신 외국인력분들께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수강하신 외국인력분들의 높은 합격률로 더욱 의미가 뜻깊었습니다.

일 시 : 2015년 12월06일 12:00~

장 소 : 다목적 홀

대 상 : TOPIK 시험 합격자 39명



제10회 컴쑥쑥왕 대회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정보화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외국인력분들과 함께 "제10회 컴쑥쑥왕 대회" 실시 하였습니다.

이번 대회 주제는 "한글문서 작성 및 퍼즐 풀이대회" 였습니다.

회를 거듭할 수록 정보화 교육 수강생분들의 쑥 쑥 향상된 실력을 확인할 수 있어 더욱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최우수상 수상자는 중국의 "장해령" 씨, 우수상 수상자는 중국의 "박용선"씨입니다.



일 시 : 2015. 12.06(일)

15:00~17:00

장 소 :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컴퓨터교실

시상내역 :

- 최우수상 : 중국 장해령
- 우수상 : 중국 박용선

소수언어 자원봉사자 간담회



2015년 동안 센터를 위해 고생해주신 소수언어 자원봉사자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12.13(일) 오전 11시부터~

1. 휴면보험금 안내
2. 2015년 사업실적 보고
3.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안내
4. 2016 상담사업 의견 반영

2015년 소수언어 자원봉사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2016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무료 이미용 봉사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경남 봉사미회 분들과 함께 외국인력분들을 위한 무료 이미용 봉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외국인력분들을 위해 수고하고 성심성의껏 봉사해주신 경남봉사미회분들로 인해 센터의 따뜻한 정과 나눔의 온기가 넘쳐났습니다.

일 시 : 2015.12.13(일) 08:40 ~ 12:40

장 소 : 센터 다목적 홀

봉사단체 : 경남 봉사미회

참여인원 : 캄보디아 외국인근로자 소반다라 외 11명



창원시티투어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창원시청과의 사업협의를 통해, 외국인력분들 40분과 함께 창원-마산-진해의 명소를 관광하는 창원시티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창원-마산-진해의 유명한 관광지과 절경을 관람하고, 크루즈까지 탑승하며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하고 유익한 날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투어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더욱 열심히 한국에서의 삶과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알차고 보람찬 한국생활을 이어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2015년 외국인근로자 창원 시티투어 실시

일시 : 2015. 12.13(일)

08:20~19:00

주최 : 창원시청

주관: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참여인원 : 인도네시아 근로자 위도도 외 39명



창원시티투어 II



힐링닥터스 무료진료

2015.12.13 오후 3시부터~5시
힐링닥터스에서 오셔서 한방 무
료 진료를 해주셨습니다.
28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았
습니다.
1년동안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2016년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진
료해주시는 한방진료 잘 부탁드
립니다.



강사·자원봉사자 간담회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센터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주시는 강사,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교육문화팀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수료식 준비와 2016년을 향한 계획을 기획하는 유익한 대화의 시간을 통해, 2015년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강사,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16년에도 더욱 화이팅하며 센터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일 시 : 2015. 12.20(일) 11:00~13:00

장 소 : 106호, 불끈낙지 식당

내 용 : 2015년 교육문화팀 사업 평가 / 하반기 수료식 및 Korean Dream 한마당 / 2016년 교육계획



2015 하반기 학업 성취도 TEST

2015 하반기 학업성취도
TEST를 실시했습니다.



교육회원들이 한문제 한문제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
과 처음 교육을 받을 때 보다 한단계 더 발전한 모습에 보람과
감동이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 시 : 2015. 12.20(일) 10:00~11:00 / 13:00~14:00

장 소 : 초급반, 중급반 교실

대 상 : 교육회원 80여명



네팔근로자 커뮤니티



2015년 12월 20일 오후 1시부터~
진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
협력관에서 진주 네팔가족 커뮤
니티에서 영화상영과 커리 제공
을 하는 등 진주지역 네팔근로
자를 위하여 커뮤니티 모임이
있었습니다.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도 함께
참가하여 원통(핸드폰 거치대,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근로자
밀착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네팔근로자 커뮤니티 II



2015년 하반기 수료식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2015년 하반기 한국어, 정보화 교실을 열심히 수강해주신 교육회원들과 함께 하반기 수료식을 실시했습니다. 135명의 수료자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우수강사에는 중급반의 황상혜 선생님 우수자원봉사자에는 기초반의 김명숙 선생님께서 수상하셨고 제41회 TOPIK 시험 우수자는 인도네시아의 율리안 토 제42회 TOPIK 시험 우수자는 베트남 웬 단 록 씨가 수상하셨습니다.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센터의 교육에 참가해주신 외국인근로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일 시 : 2015. 12.27(일) 11:00~12:00

장 소 : 다목적 홀

대 상 : 수료자 135명 / TOPIK성적 우수자 2명 / 우수강사, 우수자원 봉사자 각 1명



2015년 하반기 수료식 II



2015년 하반기 창업경제교육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2015년 하반기 창업경제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분들의 올바른 경제관념과 진정한 korean Dream 실현을 위한 귀중하고 소중한 교육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업의 준비, 창업을 위한 방향, 창업의 종류, 창업의 방식 등 알차고 가치있는 정보와 지식을 한 가득 채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일시 : 2015.12.27(일) 12:00~12:30

장소 : 다목적 홀

대상 : 교육회원 180여명

내용 : 창업경제교육 (창업의 준비, 창업의 방향, 창업의 종류, 창업의 방식 등)

2015년 송년회 및 다과회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저물어가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한 해를 더욱 뜻깊고 힘차게 맞이하는 의미를 담아 외국인근로자분들과 함께 2015년 송년회 및 다과회를 실시했습니다.

점심식사와 푸짐한 다과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수고한 한 해를 축하와 격려를 건네고, 새로운 한 해 더욱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일 시 : 2015.12.27(일) 12:30~13:30

장 소 : 다목적 홀

대 상 : 교육회원 180여명



제 4회 Korean Dream 한마당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제4회 Korean Dream 한마당을 실시하였습니다. 한국 말하기, 한국노래, 전통 춤, 단체 연극 등 다채로운 끼와 재능을 펼쳐주신 많은 외국인근로자분들 덕분에 이번 Korean Dream 한마당의 즐거움이 몇배가 되었습니다.

한국문화를 통해 자신의 한국어 실력과 끼,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해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흥겹고 즐거운 화합의한마당을 모두의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최우수상에는 기초반 스리랑카 수불 외 6명 (단체연극)

우수상에는 중국 장해령 (전통춤)

베트남 티선디압 (한국말하기-센터에서 느낀 점)

장려상에는 베트남 김혜정 (한국노래-어떤가요)

방글라데시 모이 (한국노래-동반자)

방글라데시 샤밈 (한국노래-내 나이가 어때서)

일시 : 2015. 12.27(일) 13:30~16:00

장소 : 다목적 홀

참가인원 : 스리랑카 수불 외 22명

제 4회 Korean Dream 한마당 II



2015-12-21

베트남 바이어 90%, “한-베 FTA 따라 한국산 수입 확대”

- KOTRA, 베트남 바이어 및 현지진출 한국 기업 258개사 대상 긴급 설문 -
- 투자진출 국내기업, 송금·ISD 개선으로 M&A 기회 늘어날 것 -

베트남 바이어 10명 중 9명이 한-베트남 FTA가 발효 시 한국 제품 수입을 확대하거나 기존의 거래선을 한국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사장 김재홍)는 20일 발효된 한-베 FTA와 관련해 현지 바이어 177개사와 현지 진출 한국기업 81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 20일 ‘한-베트남 FTA 영향과 우리기업 진출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9.7%가 수입 확대 및 거래선 전환을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이 중 수입을 5% 이상 확대하겠다는 응답도 79.5%에 달했다. 특히, 주요 경쟁국인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바이어 중 68.1%가 한국으로의 거래선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해 이들 바이어의 행보를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 또한 한-베 FTA가 수출 및 현지생산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A 체결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수출을 가로막고 있는 비관세장벽 완화로 우리의 대베트남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응답 기업 중 45.3%는 '현지 베트남 기업 또는 외국기업 인수 합병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한-베 FTA 투자조항에 언급된 송금 보장,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 규범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최근 베트남 정부의 은행권 부실 정리 및 공기업 민영화 추진 등 구조조정 정책으로 일부 우수한 기업들이 재정곤란을 겪고 있는 현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적극적인 M&A 추진을 통한 투자진출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FTA는 발효일인 20일과 내년 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단기간 내 관세인하 효과를 볼 수 있어 우리 기업의 대베트남 수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양국은 기업들의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하고, 투자·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각국의 국내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했다.

고상훈 KOTRA 아대양주팀장은 "생산기지로서 뿐만 아니라 수출 유망시장으로 부상한 베트남과의 FTA 발효는 2016년 우리 수출에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한-베트남 FTA 활용 설명회 등의 개최를 통해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 NEWS

두통환자를 위한 올바른 건강 관리 방법

리봄한의원 원장 김 형 민

살면서 두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두통은 일상 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두통으로 받는 괴로움은 매우 크면서도 두통으로 인해 생명 이 위태 로운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흔히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운 질환이기도 합니다.



흔히 두통으로 오래 고생하신 분들은 '머리 속에 이상이 있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에 MRI나 CT 등의 영상장비로 뇌를 찍어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찍어보면 대부분 뇌는 깨끗하다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정작 뇌 자체는 문제가 생겨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뇌에 종양이 생기거나 혈관의 출혈 혹은 경색 등 여러가지 뇌의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눈이 사시가 된다던지, 신체 일부분이 마비가 된다던지, 구토를 하되 호스 입구를 눌러 물살을 세게 하듯 분출하는 식 의 구토를 하는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정작 두통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주막하 출혈 등 일부 응급질환에서 극심한 두통을 동반할 수 있지만, 이런 증상은 곧 위중한 상태로 넘 어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오랜 기간동안 반복되는 두통 증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살면서 계속 반복되는 만성적인 두통이라면 당연히 뇌를 MRI 찍었을 때 문제가 발견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고령이 아니고 두통이 만성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사시나 분출성 구토, 마비 증상 등 뇌의 병변을 의심하게 할 만한 증상이 없는데도 두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뇌 영상을 찍어 보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두통을 유발하는 머리로 연결된 신경은 첫번째와 두번째 목뼈에서 나옵니다. 첫번째 목뼈에서 나온 신경은 정수리와 이마 앞면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두번째 목뼈에서 나온 신경은 관자놀이와 머리 측면 부위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일자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경추 변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두통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목뼈가 건강한 C자 커브를 갖고 있을 때는 머리 무게가 아치 원리로 인해 분산되어 80%는 사라지고 20%만 뼈에 작용하게 되는데, 목뼈가 일자형태 또는 역C자 형태로 바뀌면 압력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목뼈의 위치가 틀어지게 되면 늘 뒷목이 무겁고 빠근한 증상이 생깁니다. 몸에서도 본능적으로 뼈가 더 틀어지지 못하도록 근육을 긴장시켜 목뼈를 고정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코로나 스트레스 등이 더해져 뒷목의 긴장이 심해지게 되면 목뼈에서 나온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서 다양한 형태의 두통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늘 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쉽게 찾는 것이 바로 두통약입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두통약은 종류가 무척 다양하지만 결국 원리는 비슷합니다. 신경계에 작용하여 약 기운이 작용하는 동안 통증을 느끼는 기준을 높여주는 작용입니다. 약 기운이 있는 동안 우리 몸은 같은 강도의 두통도 통증으로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편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약에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함께 존재합니다. 두통약의 경우 통증의 원인을 제거해 준 것이 아니고, 통증이라고 느끼는 기준을 높여준 것이기 때문에 진통은 되지만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통약을 습관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약물의존성 악성두통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단순성분 두통약을 한달에 보름 이상 복용하거나 복합성분 두통약을 한달에 열흘 이상 복용하면 약물의존성 악성두통으로 발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체에서 통 증의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외에도 두통약을 장기 복용할 경우 간손 상과 신장 손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만성 두통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두통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자놀이와 후두부, 목의 양 측면을 따라 긴장된 근육을 자주 마사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목의 양측면으로는 사각근이라는 근육이 붙어있는데 긴장성 두통을 유발하는 핵심 근육 중 하나입니다. 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줄 때 통증이 느껴지는 근육이 문제가 있는 근육이므로 더욱 집중적으로 풀어주면 두통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온몸의 긴장을 풀고 바르게 누운 상태에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수건이나 도복끈 등을 이용해 뒷목에 걸고 가볍게 당겨주도록 합니다. 뒷목의 긴장으로 인해 시작된 두통의 경우 지그시 당겨준 상태에서 긴장을 풀고 호흡을 편안히 하는 것만으로도 두통의 감소는 물론 경추 1 번과 2번의 위치를 바로 잡는 데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셋째, 잘 때는 목 부분을 받쳐 줄 수 있는 형태의 베개를 사용 합니다. 베개는 항상 목에 베고 머리가 뒤로 젖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머리 무게로 목 뼈가 견인이 되면서 목 부위가 베 개로 인해 C자 커브가 회복될 수 있는 형태의 베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평소 가슴을 활짝 펴고 턱을 당겨 머리가 어깨보다 앞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어깨보다 얼굴이 앞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목의 C자 구조가 무너지면서 두통으로 진 행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볼 때 어깨보다 얼굴이 앞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슴을 활짝 펴고 턱을 가볍게 당겨 머리가 어깨 위에 똑바로 위치하는 자세를 습관화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통에 좋은 한약재를 차로 끓여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두 통의 부위에 따라 원인을 다양하게 보는데 아픈 부위에 따라 치료하는 약재도 나뉘어집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두통에 좋은 한약재는 '천궁'입니다. 두통에 천궁만 연하게 약으로 끓여 자주 마셔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두통의 부위에 따라 첨가되는 약재를 달리하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뒷골이 당기고 목까지 불편하면 '계지'를, 이마 쪽이 불편하면 '백지'를 함께 넣어줍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머리 옆쪽이 아프면 '시호'를, 소화불량으로 인한 두통 에는 '창출'과 '반하'를 함께 넣어주면 더욱 좋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 때 두통약의 도움을 받는 것은 좋지만, 너무 자주 복용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두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해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통환자를 위한 올바른 건강 관리 방법

KB골든라이프 2015년 12월호

제목 : 네팔 근로자 간 폭행 사건

네팔 통역원 : 스네하

○상담개요

- 네팔근로자 소비타는 2015.11.07 토요일 저녁 기숙사에서 네팔근로자끼리 모여서 술 마시고 시끄럽게 하여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음. 소비타(여)는 사업주에게 전화하여 기숙사에 와 달라고 하였고, 사업주가 기숙사에 와서 근로자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자라고 하고 돌아가자마자 네팔근로자 '어닐' 과 '디팍'이 칼을 가지고 와서 '소비타'를 죽여 버리겠다고 발로 방문을 차고 욕을 하면서 난동을 부림. 다음날 아침 사업주는 '어닐과 '디팍'에게 더 이상 함께 일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여 고용센터에 자율합의에 의해 사업장변동신고를 하였음. '소비타'는 '어닐'과 '디팍'이 전화로 계속 협박하기 때문에 겁이 나서 도움을 요청함.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디팍'과 친구 '어닐'은 2015.6월 입국하여 강원도에서 12일간 근무하고 일이 없어서 사업장변경을 한 후, 네팔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쉼터에서 19일 정도 머물다가 경남 진주지역의 토마토 농장에서 구직을 함

- 토마토 농장에는 '소비타'와 친구가 일을 하고 있었고 '디팍'이 근로계약하고 근무한 지 몇 일되지 않아 '소비타'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함. 디팍은 결혼 한 소비타의 행동이 맘에 들지 않아 잔소리를 하거나 참견을 하고 비꼬는 듯한 말을 자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고, 2015.8월경 식사시간에 '디팍'이 소비타와 '타파' 사이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한다고 '소비타'가 밥그릇으로 '디팍'의 머리를 때려서 상처를 낸 적이 있음

- 근로자들은 주로 주말이 되면 근로자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술을 마시면서 떠드는 소리로 인하여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소비타는 11.7일 인근 파프리카농장 근로자 5명과 디팍, 어닐 등 총 7명의 근로자가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고 소리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밤 2시경 사업주에게 전화하여 기숙사에 와달라고 함. 사업주가 와서 술 그만마시고 자라고 하여 사업주가 들어가자마자 디팍이 욕하면서 칼 가지고 문을 발로 쳤음.

소비타하고 다른 여근로자는 겁이나 창문으로 도망가 농장옆집에서 밤을 새웠음.

-센터와 사업장에서는 두 사람의 화해를 시도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소비타는 현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하길 원하고 불미스런 일을 일으킨 어닐과 디팍은 퇴사를 시키기로 함.

- 디팍은 창문수리비용 80,000원 사업주에게, 합의금 500,000원, 소비타에게 지급함으로써 고소는 하지 않기로 함. 이로 인하여 어닐과 디팍은 11월 9일 고용변동 신고를 하고 상담 마무리함.

2. 상담포인트

-같은 나라 근로자끼리 서로 이해해주고 사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입장을 이해해줘서 상담이 빨리 해결이 되었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된다. 또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이 적용된다.



CFC 1월 행사 안내

첫째주

- 통영고용센터 이동상담(09:30~17:00)
- 겨울방학 특강 실시(10:00~15:00)-한국어 기초반, TOPIK반
- 2016년 법인 통도사자비원 시무식 참석(08:30~)-통도사자비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 방문(14:00~)
- 농축산업 분야 밀착상담서비스(19:00~21:00)-통영시 도산면 딸기농장

둘째주

- 제43회 토익합격자 수여식(12:00~)-다목적홀
- 제45회 토익접수(1/11~1/20)

셋째주

- 제44회 토익시험 실시(08:00~17:00)-경남대학교
- 겨울방학 특강 실시(10:00~15:00)-한국어 기초반, TOPIK반
- 귀국환송 공항서비스(06:00~11:00)-진해오리엔탈정공 기숙사, 김해공항
- (주)건화 사업장 안전교육(11:00~14:00)
- 1월 상담원 역량강화교육 및 우수상담사례 발표(15:00~17:00)

넷째주

- 2016년 상반기 강사 및 자원봉사자 간담회(10:00~12:00)-106호
- 겨울방학 특강 실시(10:00~15:00)-한국어 기초반, TOPIK반
- (주)건화 사업장 안전교육(11:00~14:00)
- 1월 상담원 역량강화교육 및 우수상담사례 발표(15:00~17:00)-다목적홀
- 귀국환송 공항서비스(06:00~11:00)-진해오리엔탈정공 기숙사, 김해공항

다섯째주

- 2016년 한국음식 체험마당(설명절 떡국나눔 행사)(11:00~13:00)-주차장 및 다목적홀
- 2016년 상반기 개강식(13:00~14:00)-다목적홀

CFC와 함께해요😊

사랑해주실 준비가 된 분들이라면 누구나 OK~! 망설이지 말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자원봉사자여러분을 기다립니다.

e-mail: mfwc@hanmail.net ☎ 055-253-5270~4

홈페이지주소: www.mfwc.or.kr/ (누르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070-4481-6703



070-4481-6702



070-4481-6701



070-4481-6704



070-4481-6705



070-4481-6706

나라별 상담전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후원 해 주셨습니다.

일자	후원기관	후원물품	수량
15.12.03	남창원농협	김치	40BOX
15.12.17	푸드뱅크	음료	11BOX

< 후원 계좌 >

경남은행 513-07-이95121
예금주: 창원외국인력지원센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